

상교우서는 “교우님들께 올리는 글”이란 뜻으로 수원교회사연구소의 주보 정하상 성인의 『상재상서(上宰相書 : 재상에게 올리는 글)』를 사모하여 지어낸 소식지의 이름입니다.

## 신자의 심문 진술 속에 드러나는 최양업 신부의 활동

지난 3월호(통권 70호)에 ‘신자들의 증언 속에 드러나는 최양업 신부의 활동’을 소개했고, 9월에 간행된 『교회사학』 19호에 게재된 논문(최양업 신부 관련 사료 현황과 검토)에서 최양업 신부에 대한 신자들의 증언과 심문 진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필자는 위의 논문에서 “『좌포도청등록』(영인본 하권)에만 ‘최 신부’가 나온다고” 했는데, 자료를 더 조사해보니 『우포도청등록』(영인본 중권)에서도 최양업 신부 관련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호의 지면을 통해 새로 확인된 자료를 포함하여 관변측 심문 기록에 나타나는 신자의 진술을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추가로 발굴되는 자료가 있으면 계속해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림] 김제준 이냐시오 성인



[그림] 정하상 바오로 성인

### 1839년(기해)과 1846년(병오) 김제준, 정하상, 김대건 신부의 심문 기록

기해(1839) 8월 7일(양력 9월 14일) 김제준(이냐시오)와 정하상(바오로)의 심문 기록과 병오(1846) 5월 30일(양력 6월 23일) 김대건의 포도청 심문 기록에 최양업 관련 자료가 확인됩니다. 이 심문 기록은 모두 『일성록(日省錄)』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의 부친인 김제준은 1839년 3월 과천에 사는 최영환(최경환)이 와서 자기의 아들(김대건)의 편

지를 건네주었는데 연행사의 마부였던 조신철(가롤로)이 북경에서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보낸 지가 2년이 지난 편지였는데, 즉 김대건이 1837년 마카오에서 쓴 편지가 2년 만에 부모 앞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진술을 하면서 김제준은 최가[최영환=최경환]의 아들[최양업]도 자기 아들과 함께 (외국에) 들어간 사실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정하상은 심문에서 유가[유방제=여항덕 신부]가 귀국할 때 우리나라 사람 3명을 데려갔는데 하나는 용인에서 사는 김제준의 아들 재복(再福, 김대건)이고, 또 하나는 과천에서 사는 최영환[경환]의 아들 양업(良業)이며, 나머지 하나는 홍주에 사는 최한(崔漢, 최가=최형)의 동생 방제(方濟)라고 진술했습니다.

1846년 김대건 신부는 심문에서 자기 이름은 김재복(金再福)이며 15세 때 서양인 유가[여항덕 신부]와 조신철이 자기와 과천 최영환의 아들 양업(良業)과 홍주 최한지의 아들[崔漢之子] 방제(方濟)를 데리고 변문으로 가서 중국으로 들여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이은 심문에서 김 신부는 (중국에) 들어갈 때 함께 간 과천 최가의 아들[최양업]은 각각 헤어져 생활하였으며 있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동료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성록』의 기록을 통해 외국으로 보낸 신학생 3명 중 한 명인 최양업(崔良業)의 이름과 그 부친[최영환=최경환], 1839년 당시 부친의 거주지 과천[수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866년 박해 당시 신자들의 심문 진술에 드러나는 최양업 신부

『포도청등록』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심문 기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최양업 신부 관련 기록은 『좌포도청등록』(영인본 하권)에 5건, 『우포도청등록』(영인본 중권)에 1건이 확인됩니다.

1866년에 붙잡힌 김성오(金聖五) 베드로는 기미년(1859)에 조선인 최 신부[심문 당시 이미 죽음]에게 세례를 받고 ‘버드루’[베드로]라는 세례명을 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1868년에 붙잡힌 민효원(閔孝源) 라자로는 경기 지평(砥平, 현 경기 양평군 지평면 일대) 출신으로 1838년경에 권경호(權景鎬)에게 천주교를 배워 대세를 받았고, 을묘년(1855)에 권경호의 안내로 양인(洋人, 서양인) 최 신부를 장동(長洞, 현 서울 중구 회현동) 권대수(權大秀) 집에서 만나 고해성사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위의 민효원 라자로는 『병인지명사적』(23권 104~105쪽, 23권 119쪽)에 나오는 순교자 민효원과 동일 인물로 보입니다.

1869년에 붙잡힌 서상기(徐常基) 베드로는 1855~1856년경 자암(紫巖, 현 서울 중구 봉래동)에 사는 정의배(丁義培)의 지휘로 그의 집에서 아국인(我國人) 최 신부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의배 마르코는 서울 지역 회장으로 한때 베르뇌 주교의 집주인이었고 1866년에 참수치명당한 순교성인입니다.

이 수산나는 1839년경 사서(邪書, 천주교 서적)를 이미 죽은 김 마르타(金末多)에게 배우고 그의 말에 따라 양인(洋人) 이[메스트르] 신부, 안[다블뤼] 주교, 장[베르뇌] 주교 및 아국인(我國人) 최 신부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정인(金鼎仁) 시몬은 용인 태생으로, 인천에 살던 이태봉(李泰奉) 도마시(都馬柴, 토마스)[심문 당시 이미 처형됨]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했습니다. 이후 노(盧, 모방)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명을 지은 다음 안[다블뤼]·장[베르뇌]·최[양업] 세 주교(主教)에게 성사를 받았습니다. 30년간 동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므로 배교할 수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지여선(池汝善) 토마스는 포천 만장리(滿牆里, 현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말근다미로 추정) 태생으로 16세 때

[1854년] 장인[심문 당시 이미 죽은] 이기성(李基成)에게 천주교를 배우고 기도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세례명은 최 신부에게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자료	쪽수	심문 일시	진술한 신자		최양업 신부 관련 내용		
			이름과 세례명	나이	시기	장소	비고
좌포	433	1866.12.24 (양 1867.1.29)	김성오(金聖五) 베드로[버드루]	×	1859년	×	세례 받음
좌포	451	1868.윤4.4 (양 5.25)	민효원(閔孝源) 라자로[羅子樓]	49	1855년	서울 장동 (권대수의 집)	고해성사를 함
좌포	543	1869. 9.4 (양 10. 8)	서상기(徐常基) 베드로[버드루]	49	1855~1856년경	서울 자암 (정의배의 집)	세례 받음
좌포	547	1869.11.17 (양 12.19)	이 조이[李召史] 수산나[水仙花]	70	×	×	세례 받음
좌포	548	1870. 2.17 (양 3.28)	김정인(金鼎仁) 시몬[詩文]	51	×	×	성사를 받음
우포	769	1872.6.6 (양 7.11)	지여선(池汝善) 토마스[도마]	34	1854년 이후	× (포천?)	세례 받음

[표] 신자들의 포도청 심문 진술 - 최양업 신부와 관련

좌·우포도청에서 심문을 받은 6명 신자 중 민효원, 김정인을 제외한 4명은 모두 최양업 신부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세례 받은 연도[1854년 이후, 1859년, 1855년, 1855~1856년]와 장소[서울 장동, 자암]도 확인됩니다. 지여선이 세례를 받은 곳이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그의 고향인 포천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인 최 신부’나 ‘최 주교’ 같이 사실과 맞지 않은 진술도 있지만, 정확상 최양업 신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변측 심문 진술 자료를 통해서도 최양업 신부의 사목활동[연도와 장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측 자료 외에 관변측 자료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석원 프란치스코(연구실장)

## 모방 신부가 조선 국경에서 쓴 서한 2통③

### 두번째 서한 : 교황청 마카오대표부의 움피에레스 신부에게

지난 10월호와 12월호에서 조선에 들어온 첫 서양인 선교사제인 모방 신부가 조선-중국의 국경 변문에서 쓴 프랑스어 서한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모방 신부는 변문에서 또 다른 서한을 교황청 포교성성 마카오대표부로 보내어 자신의 조선 입국 시도에 대해 보고합니다. 출처는 포교성성 대표부 문서고 제 28권의 총 2쪽이며, 라틴어로 쓰였습니다. 이 서한은 연구소에서 최초로 판독·편집과 번역 및 주석 작업을 하는 서한입니다. 눈에 띄는 특징으로는 서한 말미의 인사말과 서명 및 작성일을 적은 4줄만 모방 신부의 친필이고 나머지는 브뤼기에르 주교와 모방 신부의 복사였던 왕 요셉의 필체라는 점과, 첫 번째 서한과 달리 조선 입국에 관한 내용만 요약적으로 전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한마음이 된 조선인 교우들과 서양인 선교사제

두 서한을 통해서 우리는 조선인 교우들과 모방 신부가 어떻게 만나서 모방 신부의 입국을 결정하고 방법을 논의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월 10일에 조선인 교우들이 변문에 도착했고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첫 번째 서한에서는 2명, 두 번째 서한에서는 5명이라고 씀). 조선인 교우들과 프랑스인 선교사제는 중국어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브뤼기에르 주교를 맞으러 왔던 교우들은 주교가 선종하였고 대신 모방 신부가 온 것을 알고 당황했으나, 모방 신부가 주교의 대리로서 성사 집행과 사목 활동을 하리라는 설명을 듣고 상황을 이해하였습니다. 첫 만남에서 교우들은 서양인을 입국시키는 일에 두려움을 갖고 주저하였다고 모방 신부는 적고 있습니다. 결론 없이 헤어진 뒤 다음날 모방 신부는 교우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 위해 한문으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교우들은 그날 저녁 다시 신부를 찾아와서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고통스럽게 죽을 위험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신부를 따르겠다”는 뜨거운 결심을 전하였습니다. 서양인 선교사제를 밀입국 시키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죽음을 당할 각오를 해야 했기에, 교우들과 모방 신부는 “살고자 하는, 동시에 죽고자 하는 열렬한 염원을 똑같이 품고” 입국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모방 신부는 처음에 국경선에서 통과하기가 위험한 지점이 세 곳인줄 알고 크게 걱정하였으나,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서 위험한 곳은 한 곳 뿐이라는 것을 알고 희망을 품었다고 썼습니다. 이곳을 지나기 위해서 교우 한 명은 모방 신부를 업고 가고, 신부는 병이 깊어서 말을 못하는 병자 행세를 하기로 합니다. 교우들은 모방 신부에게 조선옷을 입히고 조선인 처럼 서있는 모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모방 신부는 병자처럼 서 있고, 넘어지고, 부축을 받아 걷고, 길게 신음소리를 내는 등 갖가지 모습을 연기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본 뒤에 하느님의 은총이 있다면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우들과 모방 신부는 다음 날 1월 12일에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36년 1월에 피송 신부는 모방 신부의 서한을 소개하며 “당시의 눈물겨운 기억을 새롭게 하는 의미로” 교우들이 읽어보길 청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들어 행하고 전하기 위해 조선인 교우들과 프랑스인 선교사제가 만나서 중국어로 소통하며 목숨을 건 연기를 연습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이들이 남겨주신 신앙을 되새겨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혜정 마리나(연구원)

### 소식과 공지

#### ▣ 『교회사학』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20호 원고 모집

- 투고 마감일 : 2022년 1월 31일 / 분량 : 200자 원고지 200매 안팎
- 보내실 곳 : 연구소 홈페이지(casky.or.kr)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사학』 투고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후원회원 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2021년에 후원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께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를 원하시는 분과 우편, 팩스 등으로 수령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연구소로 연락 주십시오. (기존 ‘간소화 서비스’ 동의서를 제출하신 분은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